



정교회주보

제2470호

2024.04.28

한국 정교회 대구교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 탐방 17> 14세기 중반에 설립된 성 그레고리우스 수도원(사진)은 아토스 성산의 20개 수도원 중에서 17번째 서열을 차지한다. 297권의 사본과 4,000여 권의 서적 및 많은 성물이 보존되어 있다. 성당은 수도원 내외부에 14개가 있다.

성지 주일

성 멤논 수도자

(축일 조과에서)

- '찬양되시는 주여...' 생략
- 조과 복음 : 마태오 21,1~17
- '그리스도를 본 후에...' 생략
- 엑사쁘스틸라리온은 '주 우리 하느님은 기록하시다'만 3번 부른다.
- 이어서 '종려 가지 축성기도'
(각종 예식서 371)
- '대영광송' 다음에 '성지주일 찬양송'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성지 주일 제 2 응송 239
- " 찬양송 239
- " 입당송 239
- " 시기송 239
- 사도경 : 필립비 4,4~9 239
- 복음경 : 요한 12,1~18 240
- 성지주일 성모송 (비고정 성가집 67)
- " 영성체성혈송 241
- '우리가 참 빛' 대신 성지 찬양송 239

내게 마실 물을 다오

예수님은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땅 가까운 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특별히 이 두 족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땅에서, 각각의 영혼이 '자기 집'처럼 느끼는 그런 곳에서 만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르타와 그의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습니다.(요한 11,5) 복음경은 예수님이 베타니아의 '가족 전체'를 사랑하셨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 명 각각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각자에게 고유하고 세심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크기 차이가 아니라 각자에게 고유한 방식의 배려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다.(요한 4,7) 이 여인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히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중에서 [정교회출판사]

당신의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인가요?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겪으셨던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는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들의 비인간적인 태도와 조롱 섞인 말들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순교라는 참혹한 고통을 겪으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연민하고 동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마태오 27,40 참조)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을 때, 무자비한 누군가는 우리에게 물을 주는 대신, “신 포도주”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누군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대신, 십자가에서 어서 내려오라는 ‘현명’하고 쉬워 보이는 조언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침묵과 인내로써,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 끝까지 머물러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주변인들 삶에 불치병, 경제적 어려움, 뜻밖의 실패, 큰 좌절, 예상치 못한 죽음 등의 십자가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는,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을 써서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음을 떠올립시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존재를 의심치 않고 믿었을 텐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감히 정당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두 번 시도한 후에는 쉽게 실망하고 겁내서, 더 노력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쉬운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도 쉽게 선택하는 이혼, 자살과 같은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적 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십자가입니다. 결혼 생활은 십자가입니다. 수도 생활은 십자가입니다. 선교 활동도 십자가입니다. 우리 각자가 인내심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처럼 골고다까지 도달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개인의 부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부활절 잘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성 대 주간: 침묵을 위한 시간

파르테니오스 수도원장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우리는 이미 사순대재의 마지막 주간에 다다랐습니다.

경건한 우리 신자들은 이 주간을 ‘침묵하는 한 주’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것은 이 주간에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립 찬양 예식이 없어서, 이전과 같이 성가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간이 있게 되는 다른 이유가 있으며, ‘침묵하는 한 주’라는 이름은 우연히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그분의 수난에 동참하도록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 수난이란, 우리 주님께서 ‘침묵’으로 다가가신 수난입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주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침묵’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향한 모든 비난과 고발에 대해 ‘침묵’으로 대응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마태오 27,14)

“예수께서는 입을 다문 채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마르코 14,61)

그분은 당신 자신의 순교를 향해 놓인 길을 마치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걸어가십니다. 그 어떤 대답이나 반응, 그 어떤 도덕적 규탄이나 선고도 없이...

그리고 이제 우리도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골고다를 향한 길 위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왜 그분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계속해서 남에 대해 말하고, 판단하고, 단죄하고, 악마가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침묵’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데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태오 16,24)

알림

■ 성 대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신랑 의식부터 성 대 주간이 시작됩니다. 시간표를 참고하여 적극 참여해야겠습니다. 고백성사도 미리 약속을 잡고 임하도록 합시다.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 부활절 달걀과 꽃 봉헌 신청

부활절 달걀과 에피타피오스 꽃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 수도원 소식

봄맞이 단장을 국내외 교우들이 함께 힘을 모아 몇 주간 주말마다 계속했습니다. 러시아에서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를 참배하러 온 교우는 머무는 내내 봉사해 주셨습니다. 성화 수업을 받던 가톨릭 신자 부부는 꽃나무 20여 그루를 기증하고 직접 심어주셨습니다. 애써주신 분들께 두루두루 감사드립니다.

성 대 주간 및 부활절 예배 안내

4월 28일	성지 주일	오전 8:45	조과, 성요한 크리스소스톰 성찬예배
		오후 1:30	신랑 의식
4월 29일	성 대 월요일	오후 6:00	신랑 의식
4월 30일	성 대 화요일	오전 9:00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6:00	신랑 의식
5월 1일	성 대 수요일	오전 9:00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6:00	성유 성사
5월 2일	성 대 목요일	오전 9:00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6:00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식 (12 복음 봉독)
5월 3일	성 대 금요일	오전 9:00	대시과 (1, 3, 6 시과)
		오후 3:00	9시과, 만과,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의식
		오후 6:00	에피타피오스 의식
5월 4일	성 대 토요일	오전 9:00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8:00	부활절 의식, 성 요한 크리스소스톰 성찬예배
5월 5일	부활 주일	오전 11:00	사랑의 대만과
		오후 12:30	부활절 사랑의 오찬

(지역 성당 예배 시간은 해당 성당에 문의 바랍니다.)

성인의 가르침



자신을 성찰하면...

지혜로운 사부가 조언했다.

“그대는 형제가 한 행위를 지적하는 일에 익숙해지지 말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일에 능숙해지도록 하시오.

그리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시오. 그러면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의 영혼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